

목장교회 나눔지

2023. 12. 03. 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5분/온라인모임 3분)

* 세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나누어 보세요.

1.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2. 초등학교 시절, 겨울에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은?
3. 종강 이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장 장맛비 같은 찬양(15분/온라인모임 5분)

텍	약한 나로 강하게 (지 205장)	찬	무덤에 머물러 (새찬 160장)
음	무덤 이기신 예수 (지 147장)	송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새찬 154장)
성	살아계신 주 (지 316장)	가	주님께 영광 (새찬 165장)
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지 218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새찬 182장)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5분/온라인모임 30~40분)

지난 한 주간 지구촌공동체성경읽기, QT(매일성경, 새벽예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주
제
내
용

Just like Jesus(예수님처럼) 55.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 요한복음 20장 1-10절

1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동시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것은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의 입에 오른 것이 있다면 단연 죽음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나아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희랍의 이원론적 철학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를 두고, 육신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일축하신다(마 15:11).

2 만약 육신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육신을 입었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낱같은 희망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3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는 부활을 엿볼 수 있다(요 11:23-24).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조차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는 것은 믿었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삼 일째에 부활하실 것이란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다.

4 그만큼 제자들 앞에서 행해진 십자가의 죽음은 현실이었고, 참혹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다. 죽음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 죽음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도 없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즉, 죄에서 자유해야만, 죽음에서 자유 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5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금요일 숨을 거두셨다. 쓸쓸히 막 내린 예수님의 퇴장을 모든 사람이 외면했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돌무덤에 안치시킨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후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이전보다 더 굴치 아픈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군사들에게 동굴을 지키게 했다(마 27:62-66).

6 이런 상황에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 그런데 무덤 어귀를 막아 놓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을 알린다. 두 명의 제자는 현장에 도착 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것도 모자라 세마포는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 도무지의문투성인 현장에서 의구심만 가득 안은 채 그들은 돌아간다.

7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9절).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은 다시 시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지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여인들과 사뭇 달랐다. 누가복음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눅 24: 11)라고 증언한다.

8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의 표현이다. 현상은 보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인 데도 말이다. 우리 역시 죽음을 자연의 현상, 사물의 이치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혹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철학자들처럼, 자신이 걸은 경험과 철학, 가치관과 교육관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9 성경은 이런 모든 이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엄정하고 단호히 전달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분명히 모든 사람을 평하는 심판이 있음을 말한다. 또 요한복음 이렇게 덧붙인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모두가 다 부활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삶에 따라 부활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말씀이다. 특별히 죽은 후 모든 것이 소멸된다거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주장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죽음과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고전 15:19)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 오늘 살아가는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일 부활이 있어야 한다. 부활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부활이 있어야 인생의 가치가 있고, 선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다. 부활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필요도 없지만, 오늘이 괴롭더라도 내일 다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1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1절) 인류 역사의 새로운 창조의 날이 도래한 것이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좋아하지만, 부활절이 없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서도,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살아나셨다.

12 무엇보다 오늘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야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부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는가? 부활, 어제를 의미 있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들며 내일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 길을 주님께서 첫 열매로 걸어가시고 우리 또한 따라 걷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자.

점검질문 *설교의 주요 내용 점검

1.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성은?
3.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덤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이유는?

적용질문 *개인적인 목상과 적용

1.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경험이 있다면?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3. 이번 겨울방학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어 보자.

회원들 간의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15분/온라인모임 10분)

건강한 목장교회가 되도록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감사한 일과 기도할 일(부담, 근심, 고통스러운 일 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공동기도제목과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공동기도제목은 후보 참고/중보기도부장이 마무리기도).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온라인모임 7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목장이 선택한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 교회, 직장, 지역사회에서 사역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목장교회사역	비전부장, 중보기도부장, 전도부장, 선교부장, 사회봉사부장, 교육부장, 기타
---------------	--

※ 교회사역 소개

1. 2024년 1학기 개강 일정안내
 - 자매마을장 수련회 2/15(목)~16(금)
 - 형제/부부/직장자매 마을장 수련회 2/16(금)~17(토)
 - 목자연합부흥회 3/3(주일)
 - 자매목자훈련모임 개강, 지구별 향수예배 3/6(수)
 - 형제/부부/직장자매목자훈련모임 개강 3/9(토)
2. 현장예배 회복 캠페인
 - 현장예배 회복 캠페인 'Together Now 지금 함께해!'가 12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성탄절 침례식
 - 일정: 12/17(주일), 1-5부 예배전(장년목장), 5부 예배후(글로벌목장)
 - 장소: 수지체플 분당
 - 신청: 각 소속 지구 담당교역자(각 예배당 20명)
 - 침례교육: 수지 12/9(토) 오전10시 403호, 분당 12/10(주일) 오전8시30분 804호
4. 청지기 부흥회 보강 안내
 - 일시: 12/6(수)-12(화)
 - 방법: 지구총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흥회 영상 시청 후 소감문 서면 지구목사님께 제출
 - * 소감문은 보강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M52 Kingdom Project 30만원의 기적
 - 모집기간: 11/26(오늘)-12/2(토), 문의: 031-710-9356
 - 신청: 지구총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게시판 포스터 QR코드 신청
6. 제4회 정기제직회
 - 일시: 12/17(주일) 오후 4시, 분당 그레이스홀
 - 전자교인증 출석 체크 후 입장 가능(불참자 출석 위임장 제출)

North Korea	◆ 통일비전 모임 -일정: 매 주일 오후3시20분, 장소: 분당 209호
Next Generation	◆ M52 Kingdom Project 30만원의 기적 비전선포 및 모집 -일정: 11/26(주일)-12/9(토), 내용: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써 30만원 재원을 사용하여 사회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기적의 축제
New Family	◆ 아름예배부 피아노 반주자 모집(문의: 분당: 031-710-9346 / 수지: 031-270-8156) -아름 예배 때 피아노 반주하실 목사님을 모집합니다.(주일 오전 10시 or 12시)
Great Commission	◆ 하반기 세계를 품는 기도회(문의: 해외선교부/ 031-710-5940~2) -일정: 12/7(목) 오전10시30분 수지 302호, 12/10(주일) 오후2시 분당 MD702호
Global Church	◆ 몽골어예배부 주일학교 목자모집 (문의: 010-8191-9070 미가목사) -몽골어 예배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실 교육 목사님을 모집합니다.
Godly Leaders	◆ 2023 신약 일반서신 특강(온라인) -일정: 12/8(금), 기간 내 자유 수강, 등록: 12/6(수) 오후 5시까지 등록센터, 홈페이지

30일 왕국 프로젝트

- 01 M52오병이어 프로젝트: 힘겨워하는 이웃을 사랑과 물질로 함께 돕자
- 02 대한민국피로회복 프로젝트: 피로에 찌든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자
- 03 10만 감사 프로젝트: 침양에서 감사로 일어나자, 오늘 감사로 내일의 미래를 바꾸자
- 04 느헤미야 프로젝트: 1세대의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벽을 완성하자
- 05 Just Like Jesus 프로젝트: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 06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프로젝트: 지구총교회, 느헤미야기도회

원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온라인모임 2분)

각기 다른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 합니다.

[사역메모]